

오피니언

특별기고

오현섭 <여수시장>



지금 여수는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 준비에 한창이다. 실사단이 오는 것은 세계박람회 유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UN사무총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2012 여수박람회 유치운동 동참을 바라며

무엇보다도 BIE실사를 앞두고 여수 시민들의 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은 '신앙'처럼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혼자 꾸는 꿈은 미약하지만 함께 꾸는...

엑스포 개최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범도민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나서서 꼭 이뤄내야 한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세계 5대 해양 강국 건설의 토대가 되고...

의 강력한 후보다. 폴란드는 유럽국가다. 경쟁국 두 나라 모두 다 친서방세력들이다. 또한, 인구 규모면에서는 여수보다 3배 가까이 되고 관광시설이나 모든 인프라가 훨씬 더 앞서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강동욱



20세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민권과 자유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무한성장했다. 혹자는 20세기를 한마디로 이념의 세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세기로 정의하고 있다.

지인활동을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에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소액사건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개인과 산·회생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소액사건 및 개인회생 지원

가속화'라는 정보화시대의 또 다른 속성 앞에, '인터넷 등을 통해 무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리라는 믿음에는, '상실의 절망으로 대변되는 광범한 소외된 이웃과 함께'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다.

소액사건지원대상에 대한 심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단에서 할 예정이며, 사건이 특별한 난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지만 100만원의 넘지 못한다.

설문지에 쓴 휴대전화 번호로 스팸메일 쏟아져

이달 초에 열린 인터넷 업체의 지방 순회 이벤트 행사에 다녀온 뒤 보내오는 각종 이벤트와 박람회 정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들이다. 그때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는데 아마도 그 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있었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렇게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이벤트등에 참석할 수 있을지 행사 주최자들에게 묻고 싶다.

기고

최병현



또다시 사학법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갑작스런 꺾음 추위가 어수선한 정국까지 감타하는 느낌이다. 도대체 사학법이 무엇인가에 각종 민생 법안이 연계되고, 여야가 사학을 걸고 올 인을 한단 말인가?

더욱 큰 문제는 사학법을 가지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도 정작 교육발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한다는 사실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는 단연 경제나 복지이지, 어느 누구도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정명(正名)의 이치에 벗어나는 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다. 언어가 혼란스러우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 잡는 길은 언어를 뜻에 맞춰 바로 세우는 것이다.

는 확연히 대치되고, 그것도 부족해 수많은 학생은 교육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 외국인들의 손에서 간짜가 끓여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거리가 아빠가 생기고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고 교육의 수직적자가 갈수록 악화일로로 걷고 있으며 교육이야말로 경제요 복지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것도 대선 선두주자들은 웬지 교육문제를 맨 앞에 세우기를 꺼려하고 있다.

어린이 범죄 잇따라 우리나라도 엠버경보체제 만들어야

유괴와 납치, 실종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식 '엠버 경보' 발령을 제안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어린이 유괴·납치사건에 대한 비상 경보체제인 '엠버경보(Amber Alert)'라는걸 전역에서 활용중이다.

역의 모든 TV와 라디오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납치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체제다. 또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통해 납치된 어린이의 인상 착의, 수배 차량과 차종·차량번호·색깔 등을 계속 내보내게 돼있다고 한다.

시설

무너지는 지역 유통업체 보고만 있을건가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유통업체인 빅마트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점포 18곳 중 15곳을 ㈜투데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빅마트는 대형유통업체의 잇따른 진출에 맞서 '출혈경쟁'을 벌였지만 대형업체들의 무차별 공격에 밀려 분리매각이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지역의 중소형 상가는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 방편이자, 고용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가게 하나에 가족들의 생활이 달려있는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가족 전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다.

새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 붕괴 막아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사회 양극화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편입되는 중산층의 비율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할을 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은 3~4%대에서 고착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은 극심한 취업난에서 드러나듯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無等鼓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이 관료직을 향해 던진 독설은 다양하다. '공무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터 일을 만들어나간다' '공무원들은 세금이 갈리는 한 자리를 무한정 늘린다' '예산 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등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such as phone numbers and website.